

# 20여년간 판지만을 생산, 업계 선도

석탑산업훈장 수상으로 발전의 기반 닦아

유종우/삼보판지(주) 대표이사

지난 5월

12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세계화 추진대회에서는 모범 중소기업인과 근로자, 중소기업 유공자 1백 49명이 훈·포장과 표창장을 받았다.

이날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삼보판지는 24년간 줄곧 판지만을 생산해 왔으며 생산량으로 비교해 볼때 국내 최대의 제조메이커로 알려져있다. 94년 한국 증권업협회 장의등록을 마쳤고 96년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는 삼보판지는 부천시 춘의동에 건평 4000평 규모로 자리잡고 있으며 현재 경영2세인 유종우 사장이 이끌어가고 있다.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 들이고 있으며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본인에게도 큰 기쁨이지만 무엇보다도 회사의 큰 영광입니다"라고 말문을 여는 유 사장은 국내 골판지 산업계가 눈에 띄게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영세한 업체들이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1971년 서부이촌동에서 삼보판지공업사로 간판을 내걸고 81년에 법인으로 전환하게 된 삼보의 역사는 어느덧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84년 부천에 자리를 잡고 대규모의 공장을 건설할 때만 해도 미래의 수요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경영진이 신념을 새로이 하고 추진해, 73년 이미 컴퓨터시스템 도입으로 최고의 제품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새로이 하고, 산업인력을 배양하기 위해 해외연수를 보내는 등 탄탄한 경영기반을 다졌다. 그리하여 지난 90년대 초반 국내 골판지 업계의 극심한 불황기 속에서도 공장자동화, 철저한 품질 관리 등으로 기업경쟁을 일관하여 매출 신장율 21%, 손익신장율 68.3%를 실현하고 자기 자본 비율 44.84%로 건실 경영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포장이 이제는 옛날과 달라 상품의 미려성과 품질 모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중반에 판지업계의 외형이 커지면서 덩핑현상이 나타나 가격경쟁을 초래하였는데 이것은 산업계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죠. 원단의 품질은 원지의 수준에 달려 있는데 우리나라도 예전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며 일본과 비교해서는 그다지 뒤지지 않는다고 봅니다"라고 자신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골판지의 직접 수출은 거의 없는 편이지만 삼보판지에서는 일부를 방글라데시로 수출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가 직접수출이 어려운 이유는 상자의 부피가 많이 나가 운송비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며 제품의 보존에도 문제가 발생하며 펄프를 수입하여 가공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어서 경제



◀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삼보판지 유종우 대표이사의 수상모습

성도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유 사장은 자사의 경영뿐만 아닌 업계의 공동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그의 경영철학엔 공식이 없다. 단지 직원을 가족처럼 아끼고 항상 염두에 둔다는 것이다. 그래서 87년에 골판지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직원들에게 사내복지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그 당시 1억원이던 것이 지금은 5억원에 달해 교육비와 주택융자비로 활용하는 등 최대한 직원들을 위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업계질서를 지키면서 적정가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상자가격이 너무도 턱없이 싸게 거래되어 왔고 모든 원부자재와 인건비는 상승하였는데 상자가격은 10여년간 거의 가격이 오르지 않아 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라고 유 사장은 업계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최근 잇달아 골판지와 제지분야의 무분별한 증설로 96년부터 98년까지 업계의 침체가 예상된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경우처럼 조합이나 정부에서 무분별한 증설을 자제시키고 업계의 안정의 위해 중재역할을 해줄 것을 건의하며 말을 맺었다.

오랫동안 운동을 한 탓인지 그의 음성에서는 아직도 청년다운 패기를 엿볼 수 있었는데 특히 그는 매일 조깅을 즐기며 잡념을 없애고 집념을 키우고 있다한다. 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절약하는 그의 생활태도가 이제는 삼보의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방식이 되었다고 자랑하는 유 사장의 모습에서 숭선수범하는 바람직한 경영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

〈이선하기자〉